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혹은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 정직의 본보기로 다윗을 제시하며,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사 왕의 정직함은 그가 남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소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온전히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과감히 정리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구별된 영역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완성이 된 오늘날의 주일을 성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얻는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정직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호와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림으로써 일평생 성별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신앙의 경험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과 내 욕망에 속한 것을 철저히 구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과감히 찍어 불사르는 정리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성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것을 온전히 성별할 때, 우리 가정은 아사 왕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여호와와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정성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가정이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성숙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통해 빚어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경건한 성도에게는 신앙을 지탱하는 네 가지 핵심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다짐했고,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 역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둘째는 배움의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배운 바를 행하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공부와 묵상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립니다. 셋째는 드림의 습관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성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됩니다. 넷째는 모임과 교제의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경계하고 서로 권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서로 참여하는 신약의 교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쇠입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결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지체들과 더불어 모이기에 힘쓰는 일상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의 일상속에 이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씩 심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습관이 우리를 만들고, 그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경건의 훈련이 풍성해질 때, 우리 가정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찬송하기	찬송가 314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과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2001년, 열 손가락이 불고 다리가 썩어가는 병마를 안고 태어난 애덤 킹이라는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던 소년이 한 젊은 부부의 입양을 통해 수술을 거둬주고, 마침내 의족을 끼고 야구장에서 시구를 할 만큼 밝고 건강하게 자라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처럼 한 아이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과정에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곳이 없는 영적 장애인과 같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머물러 있을 소망조차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비록 죄인일지라도 다시금 밝고 건강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죄 사함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그저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요, 흔들리지 않는 힘이며,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에 기대지 말고,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는 은혜의 샘물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낙심한 영혼들을 향해, 우리 역시 주님께 받은 그 헌신적인 사랑을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정의 메마른 곳을 적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기	찬송가 288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님과 상관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20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예수님과 상관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거나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안타까운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자들처럼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찾아오셔도 영적인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가롯 유다처럼 배반의 길을 걷는 경우입니다. 온 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나, 결국 대제사장들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차가운 거절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척하지만 자기 욕망을 좇는 배신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극적인 삶을 초래합니다. 셋째는 주님의 씻기심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자신의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씻음은 주님의 대속적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선한 일도 감당할 수 없으며,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도 없습니다. 씻지 않고도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씻기심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과 상관있는 삶이란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내 허물을 씻겨주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은 주님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혹시 주님의 통치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점검합시다. 주님의 씻겨주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복된 가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발과 손, 그리고 머리까지 주님의 은혜로 씻겨주셔서, 주님과 뗄 수 없는 거룩한 관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신앙의 오솔길

세상의 많은 사상가들이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세상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 왜 아픈지를 설명하고 곳곳이 건디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은 세상에 어떻게 악이 침범하게 되었는지 사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것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에 대해 길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했던 질문을 떠올리며 많은 사색에 잠깁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보여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이다."

스펜서(Herbert Spencer)는 물리적인 세계의 존재에 대해 정의했지만, 예수는 스스로를 내보이시면서 생명 그 자체를 정의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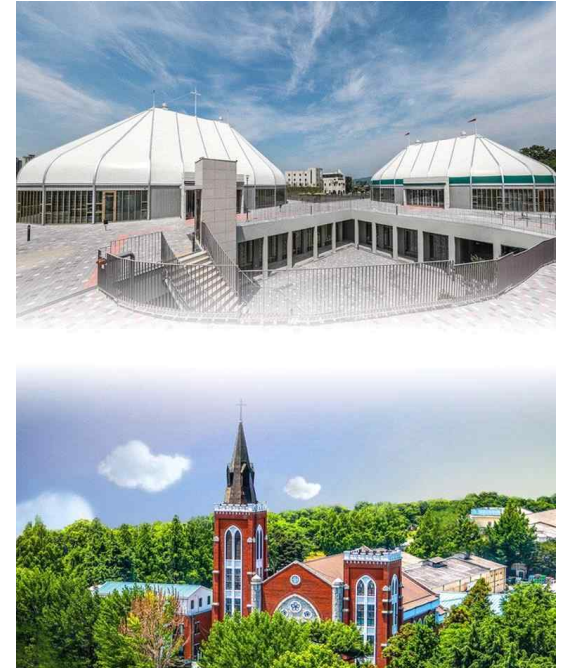
예수를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생명 그 자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영혼 깊은 곳에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도와 모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주고 있는 생명의 문제만큼 중요한 실용적인 신비주의는 없습니다. "해결책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강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신비롭기만 한 사람은 약한 존재이고, 단순히 실제적인 사람 또한 나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빛나시며, 친히 몸을 속여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능력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색하다 지쳐버린 인도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신비로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E. Stanley Jones, 1884-1972)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